

무주군-군 산림조합 '맞손'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업무 협약

무주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박철수 무주군산림조합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과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를 통해 전문성을 활용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예산확보, 행정 협력체계 유지,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무주군과 경영주체인 무주군산림조합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9월 산림청 공모에 선정됐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국비 52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와 은산리, 증산리 1,555ha 사유림을 집단화·규모화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벌채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신설, 천마 임간재배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위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산림경영에서 시



무주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박철수 무주군산림조합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과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범으로 시행하는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은 전년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조림, 숲 가꾸기 전체 사업을 무주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총 44억원을 투입해 경제림, 큰 나무 등 조림 315ha, 숲 가꾸기 1,460ha 규모로 추진되며 무주군산림조합은 사업 대상지 확보,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산림조합과의 위탁사업 MOU를 체결함으로써 전문성과 행정력 강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사유림을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순환경제 모델림으로 조성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예측 어려운 재해·사고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 받을 수 있어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 9월 제정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의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포츠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에서 불의의 사고 4건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올해도 장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시행

장수군은 코로나19의 계속된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12월 31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연장 시행한다.

상품권 구매는 만 19세 이상 개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대행점 1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며, 설 명절을 앞둔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개인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법인·단체는 월 300만원 한도로 액면금액의 5%를 할인판매한다.

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관내 농·축협 11개소에서 판매했던 상품권을 현재는 8개소가 추가되어 장수신

협, 무궁화신협(장계), 장수군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장수, 산서, 장계), 우체국(장수, 장계)에서도 상품권 구매 및 환전업무가 가능하다.

김기완 일지리경제과장은 "장수사랑상품권이 지역상권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별 할인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2020년 동안 총 306억 원의 장수사랑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1월 현재기준 약 700여 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장수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꼭 받으세요"

진안군은 지난 15일 올해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속도 검사를 의뢰해 부속도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 농가 및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면적에 따라 신고대상 축사는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는 연 2회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줬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산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속후기나 부속원료된 퇴비, 축산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속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과태료(30~200만원)가 부과된다.

퇴·액비 시료를 의뢰하려면, 퇴비는 5~6곳 이상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고, 액비는 저장소를 10분 이상 교반·폭기시킨 후 채집봉을 액비로 한 번 행구고 400mL 정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063-430-8629)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진안=우태만 기자

디엔피케어, 장수군에 마스크·신속진단키트기탁

(주)디엔피케어(대표 박운성)는 지난 15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KF94 마스크 5,000매(약 200만원 상당)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1,000개를 장수군에 기탁했다.

박운성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이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 운영

19일부터 격주 화요일 군민회관에서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19일부터 격주마다 화요일에 군민회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관하는 출장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실업급여지원, 무료 위탁교육, 정책홍보, 취업알선 및 연계 등이 진행된다.

실업급여지원은 수급자격 상담, 실업

인정, 실업급여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주에 한번 파견교육을 통해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지급, 약 1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개월)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이 인정된다면 90~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 급여지원을 받은 이후 자격 여

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만 15~만 69세 중위소득 120%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세부지원 사항은 1단계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2단계 무료직업훈련, 인턴연계, 3단계 취업알선이며,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1유형은 최대 300만원, 2유형은 최대 2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희망 가구 신청하세요"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희망 가구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

존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재산기준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 해당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기준 126만6,000원(1인 기준 47만4,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1회 3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생계 지원 등 주 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

원을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